

'香娘'을 형상화하는 두 가지 방식

-향랑전과 향랑전설

최지녀(서울대)

1. 서론
2. '烈女 이야기'로서의 향랑전
 - 2.1. 열행의 계열화
 - 2.2. 유교적 윤리 주체
3. '哀話'로서의 향랑전설
 - 3.1. 탈이념과 낭만화
 - 3.2. 가정 비극의 주인공
4. 결론

1. 서론

‘비련의 여인 향랑’이 수다(數多)한 남성 문인들의 붓끝에서 ‘열녀 향랑’으로 둔갑했다는 사실은 이제 향랑을 소재로 한 작품을 다루는 연구에서는 보편적인 전제가 되었다. 박혜숙 교수가 “실제 향랑은 ‘열’을 지키기 위해 자살했다기보다는 어떤 주체적 삶의 가능성도 없는 데에 좌절해서 자살한 측면이 더 크다”¹⁾고 본 이래로, 정출현 교수는 “개가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혼자 살기도 힘겨운, 그런 비극적 상황의 한 복판에 내던져진 것”이 향랑이 강물에 몸을 던진 이유의 전부라고 말하고 있으며,²⁾ 강명관 교수 또

1) 박혜숙, 「남성의 시각과 여성의 현실-서사한시(敘事漢詩)의 경우」, 『민족문학사연구』9, 창작과비평사, 1996, 40면.

2) 정출현, 〈향랑전〉을 통해 본 열녀 탄생의 메카니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 161면.

한 최근의 저서에서 “향랑의 죽음은 열행으로 미화”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³⁾ 물론 향랑의 죽음을 정절 이데올로기의 내면화 내지 강요의 결과로 보거나 역설적이지만 주체적인 삶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⁴⁾ 다만 이러한 사실은 향랑이 죽음을 선택하는 ‘최종 심급’에 비교적 사소하게 관여할 뿐으로, 향랑을 죽음으로 이끈 훨씬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계기는 주체적인 선택의 길이 차단된 상황과 그로 인한 ‘격절감’(隔絶感)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잘 알려진 것처럼 전(傳), 한시(漢詩), 소설(小說)로 과급되며 장르의 경계를 뛰어 넘어 번진 이른바 ‘향랑 신드롬’의 진원지는 향랑의 사건이 있었던 1702년 당시 선산 부사(善山府使)로 재직 중이던 조귀상(趙龜祥, 1645~1712)의 「향랑전」(香娘傳)⁵⁾이다. 이를 바탕으로 창작된 전은 조귀상의 전을 포함하여 장유(張瑠, 1649~1724)의 「열녀향랑전」(烈女香娘傳),⁶⁾ 이광정(李光庭, 1674~1754)의 「임열부향랑전」(林烈婦鄉娘傳), 이하곤(李夏坤, 1677~1724)의 「서정녀향랑사」(書貞女香娘事),⁷⁾ 김민택(金民澤, 1678~1722)의 「열녀상랑전」(烈女尙娘傳), 윤광소(尹光紹, 1708~1786)의 「열녀향랑전」(烈女香娘傳), 이안중(李安中, 1752~1791)의 「향랑전」(香娘傳), 이옥(李鈺, 1760~1812)의 「상랑전」(尙娘傳), 유한준(兪漢準, 1732~1811)의 「선산이열녀」(善山二烈女),⁸⁾ 장지연(張志淵, 1864~1921)의 「향랑」 등 무려 열 편이다.⁹⁾ 이 전들은

3) 강명관, 『열녀의 탄생』, 돌베개, 2009, 468면.

4) 박혜숙, 앞의 글, 40면; 정출현, 앞의 글, 161면; 강명관, 위의 책, 480면에 이와 관련된 언급이 보인다.

5) 『해충』(海叢)(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에는 향랑전이라는 제목으로, 조귀상의 문집인 『유현집』(猶賢集)에는 열녀향랑도기(烈女香娘圖記)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6) 장유는 본관은 인동(仁洞), 자는 류옥(留玉), 호는 안재(安齋)로 장희달(張喜達)의 아들이며, 송시열(宋時烈)의 문인이다. 숙종 31년(1705)에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예학(禮學)에 조예가 있었다. 문집으로 『안재선생문집』(安齋先生文集)이 전한다.

7) 이 글은 제목에 ‘전’(傳)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전체적인 체제가 전(傳)과 매우 흡사하므로 전으로 분류해 함께 다루기로 한다.

8) 『자저』(自著) 권14 ‘전’(傳) 조(條)에 선산 출신의 여종이었던 애월(愛月)의 이야기와 함께 실려 있다. 선산이열녀는 원래 제목이 「善山二烈女傳」이었던 것을 「善山二烈女」로 고쳐 놓았고, 란(欄) 외에 “當在雜著”라는 말이 있다.

9) 열 편의 전 이외에 한시와 산문 기록도 많은데, 이들 향랑 이야기를 소재로 한 문학작품과 기사는 서신혜가 편역한 『열녀 향랑을 말한다』(보고사, 2004)에 비교적 잘 망라되어 있다. 위의 전 작품 가운데 장유와 유한준의 작품은 기존의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이다. 이하

다기한 방식으로 향랑의 열행을 부각시키고 있는바, 이 글의 첫 번째 과제는 향랑의 이야기를 열녀전으로 가공하는 데 사용된 서사 기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향랑은 이른바 열녀로서만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었던가? 18세기 남성 문인들의 글과 관변(官邊)의 자료에 국한하여 생각한다면 대답은 ‘거의 그렇다’이다. 향랑의 사건을 ‘버림받은 여성의 비극’으로 그려내고 있는 최성대(崔成大, 1691~?)의 서사한시 「산유화여가」(山有花女歌)¹⁰⁾ 향랑의 이야기에서 출발해서 광활한 시공을 무대로 하는 거대한 판타지로 변형된 소설 『삼한습유』(三韓拾遺) 등의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개의 글, 특히 전(傳)은 예외 없이 향랑의 열행을 찬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지향은 같다. 그렇다면 전혀 다른 지향을 가진 일군(一群)의 시각은 없었던 것일까? 오늘날의 독자처럼 향랑을 오갈 데 없어 죽은 불쌍한 여인으로 본 사람들은 없었던 것일까?

다른 시각은 공간적으로는 외부에, 시대적으로는 후대에 있었다. 구전(口傳)된 향랑 이야기를 기록한 전설과 그것을 소개한 20세기 초반의 신문·잡지 기사들은 향랑 이야기에서 ‘열(烈)이라는 이념을 소거하고 그를 비극의 여주인공으로 만들고 있다. 향랑전설 가운데는 향랑 이야기의 골자만 추려 간단하게 정리한 것도 있고, 상당한 수준의 윤색을 가한 것도 있지만 대개는 향랑 사건의 비극성에 주목하여 향랑을 동정과 연민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¹¹⁾ 따라서 이 글의 두 번째 과제는 향랑을 소재로 한 전설과 그 전설을 가공한 글들을 통해 향랑의 이야기를 가정 비극으로 만든 요소를 검토하는 데 있다.

요컨대 향랑은 ‘창조된 열녀’임을 밝힌 기존의 연구에 힘입어 〈향랑전〉을 통해 그 ‘창조’의 경위를 재확인한 후, 향랑전설에 나타난 새로운

각 작품의 출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趙龜祥, 香娘傳, 『海叢』冬; 張瑠, 烈女香娘傳, 『安齋先生文集』권4; 李光庭, 林烈婦蕪娘傳, 『訥隱集』권20; 李夏坤, 書貞女香娘事, 『頭陀草』권16; 金民澤, 烈女尙娘傳, 『竹軒集』권2; 尹光紹, 烈女香娘傳, 『素谷遺稿』권4; 李安中, 香娘傳, 『海叢』冬; 李鈺, 尙娘傳, 『潭庭叢書』권10; 俞漢雋, 善山二烈女, 『自著』권14; 張志淵, 香娘, 『逸仕遺事』권5. 이상은 필요에 따라 〈향랑전〉으로 통칭하고, 개별 인용에서는 출전을 생략하기로 한다.

10) 박혜숙, 앞의 글, 38면.

11) 〈향랑전〉의 전통을 답습한 전설 기록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결론에서 언급한다.

향랑의 형상과 그 형상화 방식을 탐색함으로써 향랑을 이해하는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향랑전〉의 작자들은 향랑 이야기의 수용자이자 향랑 이야기를 열녀전으로 탄생시킨 창작자로서 일종의 ‘담론 유포자’이다. 그러나 그간 우리의 관심은 그 창작의 양상에만 머물러 있었던바, 이 글에서는 그 창작물이 내포한 담론과 당대에 병존하던 전설 계열의 담론이 공존하는 양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자 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위해 이 글은 〈향랑전〉과 향랑전설에서 향랑을 형상화하는데 사용한 서사 기법을 차례로 검토하고 그것을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순서를 취한다.¹²⁾

2. ‘烈女 이야기’로서의 향랑전

2.1. 열행의 계열화

조귀상의 「향랑전」은 향랑에 대한 최초의 기록인 동시에, 향랑의 죽음을 목격한 소녀를 직접 만난 남면(南面)의 약정(約正)이 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연구 초기에는 사실에 가장 근접한 기본 자료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그러나 근래에는 조귀상이 정려를 받기 위해 조정에 향랑의 일을 보고한 경과나, 이념이 과도하게 표출된 전의 내용으로 볼 때 어느 정도 가공된 사실을 서술하였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¹³⁾ 조귀상의 전을 비롯하여 그의 전을 토대로 지어진 다른 전들에서 향랑을 열녀

12) 자료의 성격 및 자료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첨언하자면, 〈향랑전〉과 향랑전설 공히 자료의 미세한 차이에 치중하기보다는 공통적인 서사원리에 관심을 두어 분석하였다. 향랑전설은 창작 시기가 비교적 뚜렷한 〈향랑전〉과 달리 정착된 시기가 명확하지 않고, 자료 또한 20세기에 출간된 것들로 〈향랑전〉과 시간적인 상거(相距)가 있음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전설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로 불가피하게 20세기의 자료를 선택하였고, 그 자료를 통해 당대에 유통되던 전설의 성격을 유추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향랑 이야기의 후대적 수용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

13) 정출현, 같은 글, 141면·150면 등 참조. 또한 “열두 살 먹은 여자아이는 분명 말을 꾸며 하지 않을 것이니 이 일은 사실임에 분명하다”(十二歲女兒, 必無文飾之言, 此其爲實蹟明矣) 등과 같은 오히려 작위적인 대목도 눈에 띈다.

로 형상화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외부에서 향랑의 행동에 ‘열’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향랑에게 열행의 내적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절에서는 우선 향랑의 행동에 열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향랑의 행동을 다른 열행과 관련시켜 계열화하는 방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계열화란 어떤 사건을 의미 연관을 가진 다른 사건들 사이에 배치하는 행위 또는 그 효과를 가리킨다. 모든 사건들은 일정한 문화의 장 내에서 이미 존재하는 사건들과 계열화되며, 계열화되는 순간 의미를 획득한다.¹⁴⁾ 향랑의 죽음은 선산(善山)이라는 공간적 배경 하에서 ‘절의’(節義)의 상징인 도학자 야은(冶隱) 길재(吉再, 1353~1419), 주인을 위해 호랑이를 물리친 의우(義牛), 남편에게조차 예(禮)가 엄격했던 약가(藥哥)와 연관된다. 길재에 대한 언급은 향랑이 몸을 던진 곳에 우연히 길재의 지주비(砥柱碑)가 있었다는 사실에서 시작된다.

아이의 손을 잡고 지주비에 이르렀다. 야은 길재의 비이다.¹⁵⁾

이에 상랑이 강에 몸을 던져 죽으려고, 홀로 지주비 아래에 이르렀다. 지주비는 고려의 충신 길재 선생의 비이다.¹⁶⁾

낙동강 가에 가서 시체를 건졌다. 물가에는 고려 충신의 비석이 있었다.¹⁷⁾

위의 내용은 각각 조귀상, 김민택, 이옥의 전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들 전에서 지주비에 이르게 된 정황은 혼자라거나 아이와 함께라거나 해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개 향랑이 지주비 부근에 이르러 몸을 던진 사실 자체

14) 질 들뢰즈, 『의미의 논리』, 한길사, 1999; 이정우, 『시물라크르의 시대』, 거름, 1999, 108~118면 참조. ‘계열화’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들뢰즈에게서 가져왔으나, 여기서 이 개념을 통해 의도하는 바는 ‘작위적인 계열화’에 가깝다.

15) 携兒至於砥柱吉治隱碑也. 작은 글씨로 표시한 부분은 세주(細注)로 처리되어 있다.

16) 於是娘欲投江而死, 獨身至砥柱碑下. 砥柱碑者, 高麗忠臣吉先生之碑也.

17) 往洛水上求之. 水上有高麗忠臣碑.

만을 단순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세주(細注)를 통해 지주비가 야은 길재의 비라는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조귀상의 전부터 고려의 충신이라는 점을 밝힌 다른 전들에 이르기까지 향량의 죽음과 길재의 충의(忠義)를 연결 짓고자 하는 의도가 은근히 작동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의도가 이렇게 은근하게 나타는 것은 전의 서사부(敘事部)에 한해서이다. 일반적으로 전은 사실 관계를 기술한 서사(敘事)와 입전자의 평가를 담은 의론(議論)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향량전〉의 작자들은 서사에서와는 달리 의론에서 향량의 죽음을 야은 길재와 적극적으로 연관시키고 있다.¹⁸⁾

찬(贊)한다. 역사에 이르기를 고려의 주서(注書) 야은 길재가 충성스런 마음으로 금오산에 숨어 생을 마쳤다 하니 선산의 절개와 열렬함은 유래가 오래 되었다. 지금 향량은 정숙하여 강에 몸을 던질 지경에 이르러서도 뜻을 바꾸지 않았으니 대개 야은의 유풍(遺風)이 있다고 할 수 있다.¹⁹⁾

위의 내용은 윤광소의 전에서 인용한 것이다. 향량이 죽은 곳이 길재의 지주비 부근이었다는 우연은 남성 사대부들을 꽤 감동시킨 듯하다. 길재가 고려 왕조에 대한 충성을 다하고 조선 왕조를 섬기지 않았던 이른바 ‘忠臣不事二君’과 향량의 ‘烈女不敬二夫’가 너무도 잘 부합했던 것이다. 윤광소 역시 향량의 죽음에 “야은의 유풍”이 있다며 그의 행동이 길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자연스럽게 규정하고 있다.

아! 할아버지께서 이곳에 부임하셨을 때 의로운 소가 있더니, 내가 이곳에 부임했을 때는 향량이 있구나. 사람들이 모두 기이한 일이라고들 한다.²⁰⁾

18) 이대형은 「18세기 열녀전 연구」(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에서 18세기의 열녀전을 서사와 의론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하면서 〈향량전〉을 서사와 의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분류한 바 있다.

19) 贊曰: 史稱, 高麗注書, 治隱 吉再之忠, 隱於金烏山以終. 善之有節烈, 由來遠矣. 今娘之貞, 以至於入江而不化, 蓋猶有治翁之遺風焉.

20) 噫! 王考之莅此府也, 有義牛; 爲不肖之莅此府也, 有香娘, 爲人皆稱異事云爾.

길재 선생이 물러나 봉계에 머물며 매일 독서할 때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는 대목에 이르르면 세 번 거듭하여 뜻을 궁리하였다. 이웃의 여자가 번번이 문 아래에 와 귀를 기울여 들었다. 선생이 그 연유를 묻자, 여자는 말했다. “읽으시는 글의 뜻이 무엇인지 감히 여쭙습니다.” 선생이 그를 위하여 설명해주자 여자는 기뻐하며 흡족해하는 듯했다. 그 후 여자는 남편이 변방에 수자리를 살러 가게 되어 문을 닫고 홀로 거처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마침 밤이라 문이 닫혀 있었다. 남편이 불려 문을 열라고 하자 여자는 안 된다고 했다. 남편이 말했다. “남편이 멀리서 오면 다른 집에서는 모두 거꾸러질 듯 급히 맞이하는데 당신만은 문을 닫고 있으니 어째서요?” 여자가 말했다. “네. 저는 진실로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자는 밤을 조심하여 사람을 드나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 문을 닫았고, 밤에는 열지 않습니다. 날이 밝아야 문을 열 것입니다.” 마침내 문을 열지 않으니 사람들은 이 여자가 선생의 풍도를 들어 그리 되었다고 여겼다.²¹⁾

내가 들으니 선산에는 절개 있고 의리 있는 사람이 많다. 사람 중에 남자로는 야은 길재가 있고, 여자로는 향량이 있다. 짐승 중에는 의로운 말, 의로운 소, 의로운 개가 있고 새로는 의로운 닭이 있다. 그렇다면 향량은 천성이 그러했던 것인가? 또 사람은 절개와 의리가 있다고 하나 새와 짐승은 그런 것을 알지 못하니 더욱 기이하다. 선산의 산천이 신령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 어떤 사람은 “그래서 착한 산이라고 부르는 거지”라고 말한다.²²⁾

위의 내용 가운데 처음의 것은 조귀상의 전에서, 나머지 둘은 이광정의 전에서 인용한 것이다. 여기서는 향량의 행동을 길재와 연관시키는 것에서

21) 始吉先生, 退居鳳溪, 每讀書, 至‘忠臣不事二君, 烈女不更二夫’, 三復致意. 隣有女子, 輒至門下, 傾耳聽之. 先生問其故, 女子曰: “敢問所讀書何意.” 先生爲解之, 女子欣然, 若會其意. 其後女子, 有夫戍邊, 女子閉門獨居. 及夫還會夜門閉, 夫呼令開門, 女子不可, 夫曰: “良人遠來, 人家皆顛倒以迎, 汝獨閉門, 何也?” 女子曰: “然. 吾固望子. 然吾聞女子慎夜, 不出入人. 吾既閉此門, 夜不開也. 猶有明日.” 遂不開門, 人以是女爲聞先生風者.

22) 吾聞善山多節義, 在人男有吉治隱, 女有香娘, 在獸有義馬, 義牛, 義狗, 在鳥有義鷄. 然則, 香娘其天性乎? 且人節義, 猶鳥獸無知, 尤異也. 豈善山山川之靈而致之耶? 或曰: “是故曰善山也.”

나아가 선산의 의로운 존재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계열화시키고 있다. 조귀상은 선산의 의로운 전통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자신의 할아버지이자 전임 선산 부사였던 조찬한(趙繼韓, 1572~1631) 대의 일을 끌어와 가문의 전통조차 선양(宣揚)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 이광정은 길재의 절의에 직접 영향을 받은 약가(藥哥)라는 인물을 끌어와 평민 여성의 절의가 선산에서 내력이 있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약가는 길재의 가르침대로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남편까지도 외간 남자와 같이 엄격한 법도로 대하는 이념적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 여성은 문답을 통해 길재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으므로, 길재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주장하기에 유리한 인물이다. 나중에 보겠지만 장지연은 이 인물을 향량과 연관시키기도 한다. 약가 이야기에 이어 이광정은 선산의 전통을 총정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선산은 절개 있고 의로운 존재로 가득한 곳이다. 의로운 남자, 의로운 딸, 의로운 소, 의로운 개가 있는 고장에 의로운 여자도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향량은 선산의 의로운 전통 속에서 하나의 필요불가결한 새 요소로 편입되며, 그 죽음은 절사(節死)가 된다. 사건의 의미는 순수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건들과 관계를 맺으며 의미화 되고 있다.

이런 의미화는 결국 향량이 길재나 약가와 같은 선인(善人)의 절의를 주체적으로 인식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설정으로 연결된다. 많은 전들이 적어도 서사에서는 향량과 선산의 전통을 연결시키지 않고 있지만, 아래의 작품들은 이러한 연관을 서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저것은 길재 선생의 지주비(砥柱碑)다.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닳지 않았다. 저 돌이 닳아 없어질 때가 있을지언정 선생의 이름과 절의는 어찌 다할 날이 있겠는가?”²³⁾

娘이 泣曰: “吾聞藥哥(亦善山人이니 其夫被搶於亂일시 守節不嫁호고 八年獨處라가 後에 夫 | 生還更爲夫婦如初호니 旌閭 | 至今在同郡 鳳溪村호

23) “彼吉先生砥柱碑也。今千載尚不磨矣，且石有時而磨滅也，先生之名與節，豈有盡耶?”

나라)之貞節 ्ह고 常慕其爲人 ्ह니 矢死不渝 ्ह고 願托身於夫家之則 ्ह야 以 終一生 ्ह노이다.”²⁴⁾

위의 내용은 이안중과 장지연의 전에서 인용한 것이다. 여러 여인들과 함께 꽃을 꺾으러 갔던 향랑은 길재의 비를 보고 길재의 절의를 사뭇 교조적인 여자로 찬양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향랑이 지주비 아래에서 죽은 것이 우연이 아님을 암시하게 된다. 이광정은 이어 의론에서도 “많은 말 할 것 없이 지주비 아래에서 향랑이 죽었다는 것만 말한다”²⁵⁾며 길재의 절의와 향랑의 절행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말 없이’ 강조하고 있다. 장지연의 전에서 향랑은 약가라는 인물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항상 그의 정절을 흠모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여기서 향랑은 길재의 절의를 약가라는 매개자를 통해 계승하고 있는 셈으로, 약가는 향랑의 역할 모델로 설정되어 있다.

향랑의 죽음을 길재의 절의와 연관 짓는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하다. 이광정의 전에서와 같이 길재의 유품이 향랑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리라는 입장에서부터, 이안중의 전에서와 같이 향랑 스스로 길재를 기렸다는 입장, 그리고 장지연의 전에서와 같이 향랑이 길재의 교화를 입은 약가를 흠모하여 간접적이지만 계통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입장까지, 향랑이 지주비 아래에서 몸을 던진 사건은 중흥의 계열 속에 배치되어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향랑의 죽음이라는 다분히 우연한 사건이 절의와 관련된 선산의 사람, 동물, 사건 등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열행으로 의미화 되었다는 점이다.

2.2. 유교적 윤리 주체

이 절에서는 향랑에게 열행의 내적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향랑을 열녀로 형상화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자. <향랑전>에서 향랑은 유교 사회의 윤

24) 장지연, 『逸士遺事』, 『張志淵全書』二,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단국대학교출판부, 1999, 824면.

25) 無多言, 只言砥柱碑下, 香娘死矣.

리덕목인 충·효·열 가운데 여성이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 덕목인 효와 열을 내면화하여 실천한 인물로 그려진다.²⁶⁾

상형곡에 사는 양인(良人) 박자신의 딸 향량은 어려서부터 용모가 단정하고 성품이 정숙하여 이웃의 사내아이들과 함께 놀지 않을 뿐만이 아니었다.²⁷⁾

어려서부터 단정하고 깨끗하여 사내아이들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지 않았다.²⁸⁾

어려서부터 성품이 매우 단정하고 깨끗하여 마을 아이들이 노는 데 따라다니지 않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다.²⁹⁾

위의 인용은 각각 조귀상, 이광정, 윤광소의 전에서 인용한 것이다. 작품 모두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 향량이 어려서부터 성품이 단정했으며 특히 사내아이들과 어울리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서민의 생활에서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世不同席同席)은 엄격하게 강요될 성질의 도덕원칙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향량은 사대부 계층의 행동 윤리를 따름으로써 사람들을 의아하게 한다. 이러한 서술의 의도는 이어질 향량의 죽음에 어린 시절부터 가꾸어 온 고유한 부덕(婦德)의 소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3장에서 보겠지만 이는 향량전설에서 향량의 어린 시절에 대한 서술이 범상하거나, 오히려 향량의 빼어난 미모와 혼전(婚前)의 연애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과 꺾 대조적이다.

이어 〈향량전〉에서는 향량의 효성에 대해 다루어 언급한다. 계모의 학대가 심했지만 늘 공순(恭順)하고 효성스럽게 계모를 섬겼다는 것이다.

26) 박혜숙 교수는 앞의 글 34면에서 이광정이 쓴 서사한시 「향량요」(蕙娘謠)에 대해, 작자가 향량이라는 구체적 인물보다 ‘열’이라는 이념 자체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주자학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인간을 ‘윤리적 주체’로 보고 있다는 지적을 하였다.

27) 上荊谷居良人朴自申女香娘, 自幼時, 容貌方正, 性行貞淑, 不但不與隣居男兒遊戲。

28) 幼而端潔, 不喜與男兒遊。

29) 自幼性行甚端潔, 不從里中兒遊, 人異之。

그 계모가 성품이 좋지 않아 향랑을 심히 박대하여 매일 욕하고 때려도 향랑은 조금도 화내는 기색 없이 오직 공손한 말로 순종하였다.³⁰⁾

어머니가 비록 향랑을 심히 박대하여도 향랑은 늘 온화하게 그 뜻을 받들었다.³¹⁾

계모가 몹시 학대하고 부러먹어도 상랑은 계모를 더욱 정성스럽게 섬기고 불손하게 구는 일이 없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상하게 여겼다.³²⁾

위의 내용은 각각 조귀상, 김민택, 이하곤의 전에서 인용한 것이다. 성격이 사나운 계모가 향랑을 학대하여도 향랑은 화도 내지 않고 온화한 모습으로 계모를 더욱 공손하게 섬겼다고 한다. 계모에게 저항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힘겨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연한 일일 텐데 향랑은 오히려 정성을 다한 것으로 그려져 있다. 작자들은 향랑을 이렇게 비정상적일 만큼 자기 억압적인 인물로 그림으로써, 향랑이 ‘효’라는 유교적 실천윤리에서 ‘열’이라는 실천윤리로 자연스럽게 옮겨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 이런 인고(忍苦)의 자세는 후에 남편의 박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디고 남편의 회심(回心)을 기다리던 향랑의 자세와도 연결된다.

향랑은 혼기를 맞아 자연스럽게, 또 계모의 재촉에 의해 이웃의 14세 소년 임철봉에게 시집을 가게 된다. 철봉은 갖은 욕설과 폭력으로 향랑을 박대하고 향랑은 결국 철봉에게 쫓겨 친정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소박맞은 향랑을 구박하는 계모 때문에 숙부의 집에 가서 몇 달을 기거하게 된다. 숙부는 향랑에게 재가(再嫁)를 권유하는데, 향랑은 이를 일언지하에 거절한다. 시아버지도 함께 나서 향랑에게 재가를 권유하기도 하지만 향랑의 태도는 단호하다.

30) 其後母性甚不良，待香娘甚薄，日加叱辱毆打，而香娘少無愠色，惟以恭言承順。

31) 母雖待娘甚薄，娘輒婉柔以承之。

32) 後母頗悍虐使之，尙娘事之益謹，未嘗有不遜，村人咸異之。

부인이 울며 말했다. “공께서는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들으니 여자는 두 행실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미천하여 아는 것이 없고, 또 불행이 좋지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미 몸을 허락했으니 바꿀 수가 없습니다. 버림받았다고 두 번 시집을 가겠습니까? 죽어도 따를 수가 없습니다.”³³⁾

향량이 울며 말했다. “아버님께서는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허신(許身)하여 두 남편을 섬기게 되면 의(義)가 아닙니다. 제가 비록 미천하나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³⁴⁾

향량이 말했다. “제가 남편이 있는데도 재가를 하면 열녀가 아닙니다. 또 진실로 의로우면 가난과 괴로움도 즐거움이 되고, 의롭지 않으면 부귀도 취하지 않습니다. 어진 이는 오로지 의로움을 추구합니다.”³⁵⁾

위의 내용은 각각 이광정, 유한준, 이안중의 전에서 인용한 것이다. 재가를 거부하는 향량의 태도는 자못 강경하다. 누차 언급되었던 온후하고 인내심 많은 성격은 온데간데없고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개진하며 죽음으로써 재가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다. 심지어 이안중의 전에서는 스스로 “열녀”라는 말을 입에 담으며 열행에 대한 의식적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향량도 스스로를 미천한 신분이라고 말하고 있는바, 평민인 향량의 재가 거부는 당연한 것도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시가(媿家)에서 쫓겨 돌아온 향량이 친지에게 몸을 위탁한다는 것은 그들 중 누군가가 향량을 먹여 살려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향량의 존재는 커다란 경제적 부담이기도 했다. 이러한 사정은 “내 어찌 백년이나 너를 부양하겠느냐?”라고 말하며 재가를 권유하는 숙부의 말에 단적으로 드러나 있다.³⁶⁾ 윤광소의 전에서는 그 해에 마침 흉년이 들어 계모가 흉년

33) 婦泣曰：“公無出此言。妾聞女不二行。妾卑微無所知，又不幸遇人之無良。然已許身矣，不可以改。其以見棄之故，而二吾行乎？死而無從”

34) 香娘泣曰：“大人何爲出此言？許身於人而二之，非義也。婦雖微賤，不爲也”

35) 娘曰：“妾有夫，再嫁非烈女也。且苟義貧苦爲樂，不義富貴有所不取。賢者惟義之趣。”

36) “吾何以百年養汝乎?” 한편 이안중의 전에는 향량이 남의 방아를 찧어주고 남의 베를 짜주면서 얻어먹고 얻어 입었지만 스스로 먹고 살 수 없어 이를 가련히 여긴 숙부가 혼처를 구해

에 누를 끼친다며 향랑을 밤낮으로 꾸짖은 것으로 되어 있다.³⁷⁾ 또 같은 전에서 숙부와 시아버지는 향랑을 위하는 마음으로 간곡하게 재가를 권유하고 있으니,³⁸⁾ 여하튼 주변의 재가 권유는 결코 ‘훼손(毀節) 권유’는 아니었던 셈이다. 이렇게 평민의 상식과 어긋난 생각과 선택이 향랑을 특별한 입전(立傳) 대상으로 만들었다.

결국 재가의 꺾박으로 갈 곳이 없게 된 향랑은 연못가에서 몸을 던질 결심을 한다. 향랑은 이 때 만난 나무하는 소녀에게 치마와 짚신을 맡기며 가족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리도록 당부한다. 이 때 향랑이 소녀에게 하는 말 가운데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내 마음 속에 근심과 고통이 있어 목숨을 버리러 이 연못에 왔다. 그런데 죽어서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부모와 시부모가 내게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의심할 테니 어찌 원통하지 않겠니?”³⁹⁾

“이제 숙부와 아버지가 나의 뜻을 앗으려 하니, 여자가 죽은들 어찌 두 집 밥을 먹을 수 있겠니? 이렇게 내 뜻을 보이려 하는데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내가 숨어 도망가 버렸다고 생각할까 걱정이었다.”⁴⁰⁾

“내가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부모님께는 죄를 짓는 것이니, 장차 무슨 면목으로 뵈겠는가?”⁴¹⁾

위의 내용은 각각 이광정, 이하곤, 윤광소의 전에서 인용한 것이다. 향랑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결백이 문혀 명예를 더럽히게 될까 몹시 걱정하다가 말을 전할 수 있는 어린 소녀를 만나자 매우 기뻐한다. 남자라면 함께

주려 했다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온다; 爲人春以食, 爲人織麻絮及製人衣裳以衣. 娘有叔, 見娘窮無依, 不能自給, 憐之, 欲爲娘求嫁.
37) “乃歲凶, 簞粥乏. 繼母朝夕叱曰: ‘女既嫁, 何以累我?’”
38) 叔曰: “汝何家不可居, 乃自苦如此?”; 舅曰: “子悖甚不可以教, 婦何家不可居, 乃自苦若是?”
39) “我有隱痛於中, 舍命赴淵. 然死而不明言, 父母舅姑, 疑我有他, 豈不冤乎?”
40) “今叔父又欲奪我志, 女子死耳, 寧可吃兩家飯乎? 以見吾志, 恐不母舅姑或疑我潛逃而去.”
41) “吾死不得, 訣父母, 罪也. 將無面相見.”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대목⁴²⁾에서 어린 시절 남자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던 단정한 모습을 재확인할 수 있거니와 향량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사실을 알리려는 결벽에 가까운 태도를 보인다. 물론 죽음을 앞둔 이가 자신의 사연을 글이나 말로 남겨 지나온 삶을 정리하고 스스로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두려워 달아나려 하는 어린 소녀를 붙잡아 죽음의 과정을 낱낱이 확인하고 전하게 하는 향량의 집요함⁴³⁾은 죽음을 앞둔 사람의, 진실에 대한 소박한 지향이라고만 보기는 힘들다. 이 경우 향량은 자신의 죽음의 경위를 의심의 여지 없이 밝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졌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18세기 열녀전 중에는 정절모해에 맞선 여인들의 전이 있는데, 훼손했다는 의심을 받은 여인들은 수치를 무릅쓰고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밝힌 후에야 자결하는 경우가 많았다.⁴⁴⁾ 향량의 행동은 열녀의 이런 행동 패턴과 겹친다. 또한 향량은 윤광소의 전에서 보듯이 마지막까지 부모에 대한 걱정을 놓지 않고 죄책감을 느낀다. 죽는 순간까지 효와 열의 화신으로 칭송되기에 손색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3. ‘哀話’로서의 향량전설

3.1. 탈이념과 낭만화

향량을 형상화하는 방식에 있어 향량전설이 〈향량전〉과 명백히 다른 점은 향량전설에서는 ‘열(烈)과 관련된 말이 자취를 감추었다는 것이다. 열녀 향량의 자리는 ‘착한 향량’, ‘예쁜 향량’, ‘불쌍한 향량’이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다른 향량을 그려내기 위해 향량전설에서는 〈향량전〉에서 기본

42) “且雖逢人而男兒則不可與語，壯女則必止我死，汝則年幼而性慧，不能挽我，而能傳我言於我父，此又非天幸乎?”

43) “將有投水之狀，兒不勝恐懼，起身走來，則其女迫至挽兒，復到淵上。”

44) 이재(李裁, 1657~1729)의 「홍열부전」(洪烈婦傳), 이시선(李時善, 1625~1729)의 「열녀홍씨전」(烈女洪氏傳) 등이 대표적이다.

적이고 핵심적이라고 여겨졌던 이야기들이 빠지거나 간략하게 처리되고, 대신 중요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부각되거나 새로운 이야기가 끼어들었다.

우선 향랑의 이야기를 다룬 전설 기록을 보면 향랑의 외모와 성품, 계모를 맞아들이기 이전의 가정생활이 비교적 낭만적이고 따스하게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리조 중엽 때 선산고을에 일찌기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한 분만을 모시고 사는 향랑이라고 부르는 어여쁜 처녀가 있었는데 그는 부모에 대한 효성이 아주 지극할뿐더러 품행 또한 단정하여 보는 사람들마다 치하를 했다. 그러니 그의 가정은 말 그대로 웃음 속에 살아가는 아주 행복스런 가정이었다.⁴⁵⁾

평범한 서술 속에는 간단하게나마 향랑의 외모에 대한 칭찬도 있고 화목한 가정에 대한 서술도 있다. 효성이 지극했다는 서술이 있긴 하지만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한 요소, 혹은 이후에 일어날 향랑의 죽음의 비극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일 뿐 〈향랑전〉에서 향랑의 죽음을 열행으로 의미화하기 위해 일찍부터 향랑의 태도에 유교적 윤리가 스며있었음을 드러내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향랑비(香娘碑)와 향랑연(香娘淵)』이라는 제목으로 기록된 또 다른 전설⁴⁶⁾은 분량이 확대되면서 〈향랑전〉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장면들이 삽입되어 있는데, 그 하나는 바로 향랑의 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장면이고, 다른 하나는 향랑이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며 재혼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장면이다.

“엄마, 왜 그래? 엄마 울지마!”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가슴팍을 파고들었다. 여인네의 숨결은 들릴락말락 했다. 핏기없는 얼굴에서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러내렸다. “이 불쌍한 것아, 내가 죽으면 너를 누가 길러 준단 말이나.” 여인네가 힘없이 중얼거리자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라도 짐작을 하는지 어머니

45) 윤영·조정현·최웅범 편, 『향랑연』, 『조선민간전설』,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한국문화사 영인, 1994, 84면.

46) 박영준 편, 『향랑비(香娘碑)와 향랑연(香娘淵)』, 『한국의 전설』7, 한국문화도서관출판사, 1972, 414면~417면.

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다.

향량은 홀아비로 늙어가는 아버지가 측은했다. “아버지!” “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불쌍해요.” “허허, 그게 무슨 소리냐. 에미 없이 자라는 네가 가엾어 못 보겠다.” “아버지, 새 엄마를 얻으세요.” “뭐라고?” 어린 딸의 말에 아버지는 자못 놀랐다. “언제까지 외롭게 늙어 가실 수야 없잖으세요? 하루라도 빨리 새 엄마를 얻도록 하세요.”

첫 번째 인용은 임종 직전의 모친과 어린 향량이 작별하는 장면이고, 두 번째 인용은 향량이 아버지에게 재혼을 권하는 장면으로, 두 장면 모두 김분량의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다. 아버지의 재혼과 계모의 구박이라는 사건 이전에 있었을 법한 상황을 재구성해 넣은 셈인데, 친어머니의 애정과 아버지의 애정을 동시에 상실하게 되는 계기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어머니의 부재는 향량이 돌아갈 곳이 없게 된 매우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러한 정황이 더욱 부각될 수 있도록 어머니와 사별 장면을 강조했다.

향량전설 가운데 가장 큰 변이를 보이는 것은 김동환의 「향량과 매나리 꽃노래」이다. 이 글은 ‘八道傳說巡禮’라는 연재물의 세 번째 글로, 모두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에는 『얼얼널널 상사뒤』, ‘香娘과 繼母’, ‘慶男이와 굶은 맹세’, ‘팔니워가는 시집’, ‘新郎의 가진 虐待’ 등의 제목을 붙였다. 편의상 각 장에 순서를 부여하면 이 가운데 3장 ‘慶男이와 굶은 맹세’, 4장 ‘팔니워가는 시집’은 〈향량전〉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내용으로 상상력이 극대화된 부분이다. 3장은 경남이라는 청년이 향량을 혼자 사모하다가 서로 연정을 느끼게 된다는 내용이고, 4장은 향량의 계모가 동네의 만석군과 통정(通情)하고 그의 아들에게 향량을 억지로 시집보낸다는 내용이다.

이 글에서 향량의 됃됨이는 〈향량전〉에서와는 사뭇 다르게 그려진다. 〈향량전〉에서 정숙하고 어른스러운 인고(忍苦)의 여인으로 그려지던 향량은 이 글에서는 아름답고 귀여운 소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까-만 머리카락이라든지 어글어글한 눈이라든지 방싯 웃는 두 입술이라든지 실로 귀엽고 소담스럽고 아름다워 가튼 마을 계집애들도 종일 보아 슬치 안는다고 싸라다녔다. 하물며 총각애들이야. (...) 그 동리는 香娘이가 살무로 모든 젊은 少童들이 우슴판으로 그날그날을 보내었고 老人들도 薄酒山菜를 마실 망정 나뵈가치 너울너울 나다니는 香娘을 보고서 저도 新郎이 된 듯 젊어지어 깃부게 깃부게 이 세월을 보내었다.⁴⁷⁾

향랑의 생김새는 까만 머리카락, 어글어글한 눈, 방싯 웃는 두 입술 등 미인의 그것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총괄하여 귀엽고 소담스럽다고 아름답다고 했다. 향랑은 〈향랑전〉에서 보던 금욕적이고 의젓한 태도를 버리고 성적 매력조차 지닌 연모의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런 향랑을 같은 소녀들도 동경하고 총각은 물론, 노인들까지 흠모하였다는 대목에 이르면 은근한 욕망이 드러나면서 통속성마저 느껴진다.

이 낭만적 통속성을 이어받으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두 개의 에피소드가 삽입된다. 그 하나는 경남이라는 청년과의 로맨스다. 경남은 “이곳 書齋에서 제일 어렵다는 四書を 넘는 젊은 선비요 또 활을 잘 쏘아 갖금 산속에 드러가 노루를 잡아다가 고기를 동리에 논아주는” 훌륭한 청년으로 향랑을 사모하여 주위를 배회하고, 계모가 시킨 엄청난 양의 빨래로 고생하고 있는 향랑을 위해 순식간에 빨래를 다 해주는 청년이다.⁴⁸⁾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지만 향랑은 계모의 농간으로 지주의 아들에게 억지로 시집을 가게 되고, 경남은 마음의 병을 얻어 향랑의 혼인 전날에 세상을 떠나고 만다. 확실히 경남과의 로맨스는 향랑의 열행과는 정반대 지점에 있는 행위이다.

그리고는 둘은 엇질줄 몰라 가슴을 서로 안었다

47) 金東煥, 「향랑과 메나리꽃노래」, 『별건곤』 제10호, 1927, 164~165면.

48) 위의 글, 166면.

경남이는 만흔 원한을 품고 香娘의 일흠조차 부를 수 업는 저 세상으로 가 버렸다. 香娘은 병풍 뒤에 숨어 눈이 붓도록 울고 또 울었다

그것이 마즈막까지 향낭(香娘)이를 부르면서 죽은 경남의 무덤일 줄이야! 향낭은 묘에 업되어 이 생의 한을 모다 풀어 놓는드시 슬피 슬피 울다가 무덤 우에 꽃을 모조리 쓰더 덩허눅코 떠나지 안는 발길을 움겨 (...)

향랑전설의 향랑은 어린 시절부터 사내아이와는 어울리지 않았던 열녀 향랑과는 달리 경남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 포옹하며 사랑을 표현하기도 한다. 또한 향랑은 혼인을 앞 둔 상황에서도 세상을 떠난 경남을 못내 가슴 아파하고, 그의 무덤을 발견하자 슬피하며 애정을 표현한다. 여기서의 향랑은 ‘정숙한’ 여성의 태도를 완전히 벗고 열정적이고 인간적인, 그야말로 남성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성으로 그려진다. 열녀 향랑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러한 향랑은 경남이라는 인물의 삽입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새로운 조연의 등장 이 주인공의 의미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랑 이야기와는 대조적으로 향랑이 연못에 몸을 던지는, 어쩌면 모든 〈향랑전〉이 시작된 그 장면의 처리는 전설에서 매우 소략하다. 자신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말 등이 장황하게 펼쳐지는 〈향랑전〉에서와 달리 향랑전설에서의 향랑은 ‘문득’ 죽음을 택하고 만다.

그러던 어느 봄날 이 눈물겨운 신세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죽기로 결심한 그는 아버지와 남편에게 유서 한 장씩을 남긴 뒤 오태강 깊은 소에 몸을 던져 죽었는데 그때 나이 겨우 스물 다섯이었다고 한다.⁴⁹⁾

향랑은 기가 막혔다. 난폭한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또한 친가에서마저 냉대를 당하니 갈 곳이 없었다. “어머니! 어머니!” 향랑은 죽은 어머니를 입 속으로 불러보며 눈물을 흘렸다. 살 길이 막연한 향랑은 마침내 죽기로 결심을

49) 윤영·조정현·최용범 편, 앞의 글, 85면.

했다. ‘이렇게 살아선 뭣하나. 차라리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가자.’ 향랑은 무거운 발걸음을 한 발자국씩 떼며 마을 앞 연못으로 나갔다.⁵⁰⁾

죽음을 택하는 향랑의 탄식을 보아도,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아도 향랑이 죽음을 택한 이유는 누구도 자신을 따뜻하게 받아들여주지 않는 세상이 너무 힘겨워서이다. 이는 마을 사람들이 향랑의 시신을 발견하고는 “참다 참다 못해 그만 연못에 몸을 던졌군. 쫓쫓”⁵¹⁾하고 탄식하는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구전되어 오는 향랑전설에는 재가의 요구가 아예 보이지 않는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죽음을 열행(烈行)으로 볼 근거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한편, 「향랑과 메나리꽃노래」는 파인(巴人) 김동환(金東煥, 1901~?)이 친일적인 성향을 드러내기 한참 전인 1927년의 글로, 봉건적 가족제와 지주제에 대한 그의 신경향파적인 비판이 여과 없이 드러나 있다.

그 꽃속에 서리어있는 순결한 一少女가 돈만흔 이와 싸우다가, 또 封建社會의 道德律과 皮두성이 되어 싸우다가, 참혹하게 패하여 썩구러진 그 哀話가 숨어있는 줄을 이능이가 몇분이나되랴 薄命한 少女 香娘은 실로 조선의 黎明期에 잇서 財閥과 싸우다가 또 惡繼母와 싸우다가 서릿발 맞난 구월국화가티 채 피어도 못보고 犧牲된 先驅者의 女性이니⁵²⁾

여기서 향랑의 시가(嫗家)는 큰 부자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향랑의 남편이 “그 마을에서 농사캐나 짓는 박서방의 아들이었다”⁵³⁾는 다른 전설의 한 대목은 물론, 이안중의 「향랑전」에 나오는 “夫故豪家者”라는 대목과도 상통한다.⁵⁴⁾ 이렇게 볼 때 김동환의 글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으로 인해 과

50) 박영준 편, 앞의 글, 415면.

51) 박영준 편, 앞의 글, 417면.

52) 김동환, 앞의 글, 164면.

53) 박영준 편, 앞의 글, 416면.

54) 이안중의 전은 다른 전들과 서사 전개가 이질적이어서 일찍부터 설화 계열의 서사를 가져와 쓴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李春基, 香娘說話의 小說化 過程과 變異, 『한양어문연구』4, 1991, 157면; 박희병, 『朝鮮後期 傳의 小說의 性向 研究』, 성균관대

장된 면은 있을지언정 분명 향랑전설의 전통 속에서 창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향랑에게 쏟아진 남편의 학대와 시부모의 냉대는 일반 민중에게는 시가의 위세로 받아들여졌고, 그러기에 향랑에 대한 동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 선다면 일견 과격하고 과장된 것처럼 보이는 김동환의 논지도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게 된다. 순결하고 아름다운 소녀의 죽음은 마을 지주나 권세가의 횡포와 가족 구조의 모순에 의한 희생인 것이다. 향랑을 ‘선구자적 여성’으로 부르는 데는 여전히 어색한 기분이 남아있지만, 이 말은 아마도 당시에 만연해 있던 지주 계층의 만행과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에 의해 희생당하는 여성의 불행을 제일 먼저 처절하게 감내했던 여성이라는 의미에서 한 말이 아닌가 한다. 여하간 김동환에게 향랑을 열녀의 자리에 두고 칭송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그에게 있어 향랑은 구습의 희생자로서 안타까운 연민의 대상이었으며, 이는 향랑전설 전체를 관통하는 공통적인 정서이기도 하다.

3.2. 가정 비극의 주인공

향랑 이야기는 기본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본다면 친모를 잃고 계모의 구박을 받으며 자란 소녀가 시집을 가서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오갈 데 없어 자살한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 속에서 향랑은 가련한 여인일 따름이며, 이것이 향랑전설을 다룬 신문이나 잡지 기사가 향랑의 이야기를 ‘哀話’로 명명한 까닭일 것이다.⁵⁵⁾ 향랑전설은 ‘애화’ 가운데서도 가정사가 불러온 ‘애화’이다. 이러한 점은 각 기사의 부제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김동환이 쓴 「향랑과 메나리꽃노래」에는 ‘繼母와 남편을 원망하다가 / 향랑 연못물에 빠지어 죽어’라는 7·5조의 설명이 붙어 있고,⁵⁶⁾ 우이동인(牛耳洞人)이라는 필명의 필자가 쓴 「香娘淵의 由來」라는 글에도 ‘남편의

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3, 164면 참조.

55) 20세기 초의 신문과 잡지 기사에는 향랑의 이야기를 ‘哀話’라는 표제 아래 실거나 그와 유사한 정서를 전달하는 제목을 단 경우가 많이 보인다. 車相瓚, 山有花 노래와 朴香娘, 民謠에 나타난 哀話(2), 『별건곤』 제57호, 1932; 鄭益鎭, 구슬픈 民謠를 남긴 香娘, 佳人失戀血淚錄(2), 『삼천리』 제7권 9호, 1935 등이 있다.

56) 金東煥, 앞의 글, 162면.

학대를 못이기고 / 메나리노래를 두고 죽어’라는 설명조의 부제가 붙어 있다.⁵⁷⁾ 곧 향랑에게 일어났는 가정 비극은 친모의 조사(早死), 계모의 학대, 남편의 폭력의 순으로 이어진 일련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도 간단히 언급하였지만 향랑이 모든 삶의 가능성을 차단당한 채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은 친모의 부재에 닿아있다. 그래서 향랑전설에서는 친모와의 이별 또는 친모에 대한 그리움이 〈향랑전〉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의 강도로 강조되어 있다. 아래는 친모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이 드러나는 대목 몇이다.

“어머니! 어머니!” 향랑은 죽은 어머니를 입 속으로 불러보며 눈물을 흘렸다. 살 길이 막연한 향랑은 마침내 죽기로 결심을 했다. ‘이렇게 살아선 뭣하나. 차라리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가자’⁵⁸⁾

“내가 비록 죽더라도 시부모는 보지 안코 우리 친어머니를 만나고 이런 원통한 사정이나 말하겠다” 하고 여광여취하야 혹은 통곡도 하고 혹은 노래도 하다가 물로 뛰어드러가라 하니”⁵⁹⁾

이리저리 孀家에서 갑업게 물니어다니다 다시 도라갈 親庭도 업는 香娘의 신세는 외롭다 할는지 슬프다 할는지 (...) 다시 어머니 무덤가에 가서 마즈막 울음을 울고서 도라서⁶⁰⁾

향랑전설 속의 향랑은 죽기 전에 자신을 받아줄 어머니가 없음을 슬퍼하며, 죽어서 어머니를 만나 원통한 사정을 토로하겠노라고 말한다. 세상에 마음 부칠 상대가 없었던 향랑은 죽음이라는 극한의 고독 앞에서 어머니를 심적 탈출구로 삼았다. 〈향랑전〉의 작자들은 향랑의 죽음을 ‘從容取死’라 찬양하였지만, 죽음 직전의 향랑의 모습에서 우리는 지극히 나약한 인간의

57) 牛耳洞人 抄, 『香娘淵의 由來』, 傳說의 朝鮮(三), 『동아일보』. 1927.8.23.

58) 박영준 편, 앞의 글,

59) 車相瓚, 앞의 글, 16면.

60) 金東煥, 앞의 글, 169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뿐, ‘열’이라는 숭고한 이념에 조용히 몸을 내맡기는 열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⁶¹⁾ 향랑전설에서 열행과 관련된 언급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향랑전설에서는 향랑의 죽음을 지극히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다.

이제 계모와 남편의 학대에 대해 살펴보자. 계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일은 20세기를 넘어서면서 사회 문제로 비화한, 매우 민감한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1929년 11월 13일에 발간된 『삼천리』 제3호는 「「繼母의 悲劇」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조병옥(趙炳玉, 1894~1960), 안재홍(安在鴻, 1891~1965), 서춘(徐椿, 1894~1944), 차상찬(車相贊, 1887~1946) 등의 논설을 실고 있을 정도이다.⁶²⁾ 따라서 이 시기의 계모란 악독함의 화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성싶다.

향랑은 계모한테 별별 학대를 다-바뻐서다 향랑이가 열일곱살이 되었을 때에 림칠봉이란 열네살 된 소년에게 식집을 갖다 향랑은 신랑될 사람이 나희는 어리지만 위선 계모의 눈압흔 찌뺏스면 하는 간절한 생각에 림칠봉에게 두말 업시 간것이였다 향랑은 식집가든 날가치 깃븐 날은 업섯다 향랑은 식집가는 것이 그러케 깃븐 것이 아니라 밍게 구는 계모의 꼴을 안보게되여 더욱 깃뻬든 것이다

위의 내용은 앞서 언급한 「香娘淵의 由來」에서의 인용한 것이다. 향랑은 갖은 학대를 일삼는 계모를 떠나는 것이 소원이었기에 기뻐하며 두말없이 식집을 갖다. 이러한 향랑의 모습은 〈향랑전〉에서 갖은 구박에도 불구하고 계모에게 공손했던 향랑과 사뭇 대조적인 것으로, 실제 계모의 학대와

61) 이 말은 〈향랑전〉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향랑전〉에서도 향랑은 두려움 없이 죽음을 택하기보다는 오히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솔직히 나타낸다. 대표적으로 조귀상의 「향랑전」에서 한 구절을 예로 들어본다. “一死已決, 而見水猶有恨心不忍投, 可憐也. 吾寧不見水矣. 遂脫衫蒙其面, 使不得見水而後一躍, 而永投於水中.”

62) 차상찬의 글 일부를 예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계모 때문에 이러나는 가정 비극은 꺾으나 만타. 소설로도 장화홍련전」에 나오는 사실이란다든지 전설로도 경상도 선산에 잇는 「香娘」의 이야이라든지 정말 잇는 사실로도 순(舜)님금의 아버지 고수(瞽叟)가 후실을 어더 이러나든 비극이라든지 옛제든지 우리나라 가족 제도 우에 이 「繼母制」가 잇서 수만흔 子女를 죽였고 또 울게 한 것은 사실이다. (...)”

그에 대한 향랑의 반응을 상상케 한다. 김동환의 글에서의 계모는 향랑을 구박할 뿐만 아니라 만석군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향랑조차 그 아들에게 팔아넘기려는 극악한 사람으로 그려져 있다. 그러나 잔인한 계모의 곁을 떠난 향랑에게는 다시 남편의 학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첫날밤부터 이부자리에 오줌을 싸고는 香娘이가 씻다고 외이고 또 금수절이나 은비녀 등을 장롱에서 쓰내어 제가 팔아먹고는 香娘이가 그리하였다고 도져 누명을 씌워 때리기도 하였다. 엇던 때는 밥을 굶기고 엇던 때는 옷을 벗기어 쫓쳐내기도 하여 온 동리의 쫓으로 일흠 잇는 絶世의 小女가 지금은 실로 강아지만한 갑도 업게 도라다니게 되었다.⁶³⁾

박충각은 그 마을에서 농사깨나 짓는 박서방의 아들이었다. 한데 박충각은 원래 성품이 거칠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향랑의 남편은 신방을 치룬지 사흘도 안되어서 벌써 그 본성을 드러냈다. “어, 취한다! 이년아, 그래 남편이 술 좀 먹었기로서니 그 따위 눈으로 쳐다봐!” 남편은 욕설을 퍼부으며 손찌검까지 했다. 이러한 일은 하루가 멀다 하고 되풀이되었다. “이년아, 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네깁년은 꼴도 보기 싫다!”⁶⁴⁾

몇 가지 성명으로 등장하는 어린 남편은 때로는 치졸하게 때로는 공포스럽게 향랑을 괴롭히고 급기야는 향랑을 내쫓는다. 향랑전설에서 남편의 학대는 〈향랑전〉에 비해 훨씬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향랑에 대한 우리의 연민을 한층 깊게 한다. 계모에게서 도망치듯 간 시집에서 남편의 끔찍한 폭력에 시달리던 여주인공이 갈 곳을 잃어 죽음을 택하게 된다는 설정은 독자에게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정 비극의 주인공으로 그려진 향랑에 대해 실제 독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63) 金東煥, 앞의 글, 169면. 필자 미상의 ‘향랑」(『신한민보』, 1917.10.18)이라는 글에도 비슷한 에피소드가 보인다.

64) 박영준 편, 앞의 글, 416면.

향랑(香娘)이가 어엿하다는 것을 읽을 때 공연한 호기심(好奇心)으로 내 눈은 지상으로 향했다. 점차 읽어보니 그가 불행히도 계모(繼母)의 손에 길림을 바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요년』 『조년』 소리를 들어가면서 눈물 속에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누나의 압길이 잘 되기를 기다리는 것 가튼 마음으로 날마다 신문이 오기를 초조히 기다리며 『향랑』의 기사를 먼저 차졌었다. 그가 시집을 가서 안락한 가정을 이루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가 한 것도 허무한 봄 썸이요 남편의 버림을 바다 친정 부친의 집으로 도라갔으나 행혀나 무정한 남편의 마음이 도라설가 하고 이웃집에서 기다렸다는 것 이라든지 가련한 향랑이 금방 나의 압해 서있는 것가튼 생각이 나서 나는 것잡을 수 업는 설음을 늦기엇섯다 결국 그는 처량하고도 가엾은 산유화(山有花)를 부르며 지는 해가 빛기고 잇는 김흔 물속에 영원한 안락을 차자서풍덩 실 몸을 던졌스니 아-그는 무엇을 차져 갓섯든가? 나는 이 기사를 보고 남뵈그러운 줄도 모르고소리를 쳐가며 울엿다 한 번 보지도 못한 기사 중의 향랑은 아직 까지도 그 자태가 나의 머리속에 박(혀) 생각이 지금도 새롭다 (高敝朴富吉)⁶⁵⁾

이 글은 『동아일보』 창간 십주년을 맞아 독자들이 그간 신문을 읽고 느낀 점을 써 보낸 일종의 독자투고로, 향랑전설의 독자가 향랑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던가를 보여주는 독후감이라고 할 수 있다. 고창에 사는 박부길이라는 남성 독자는 향랑이 예뻐했다는 말에 호기심을 느꼈고, 마치 누나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같은 마음으로 향랑의 기사를 찾아 읽었다고 한다. 인간적이고 여성적 매력을 가진 캐릭터로 변신한 향랑에게 어울리는 감상이라 하겠다. 또 독자는 향랑이 끝내 물에 몸을 던지는 대목에서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소리 내어 울었다고 한다. 이는 이야기 속 향랑의 삶에 대한 강한 공감이자 연민이다. 그는 향랑의 죽음을 궁극적으로 남편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한 설움에 의한 것으로 보고 불행한 한 여성의 삶에 깊은 연민을 표시할 뿐 지조나 윤리 등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 이것은 20세

65) 朴富吉, 二千萬衆의 心琴에 부딪친 本報를 通하여 울고 웃은 讀者의 感想片片, 朝鮮의 十年間 喜悲曲-同病相憐格 香娘을 보고 울든 일, 『동아일보』, 1930.41.

기를 살았던 ‘독자’의 감상일 뿐만 아니라 또한 향랑과 동시대를 살았던 18세기 ‘청자’의 감상은 아니었을까? 향랑의 얼굴은 생각보다 다채롭게 새겨져 있는 것 같다.

4. 결론

지금까지 〈향랑전〉과 향랑전설에 나타난 향랑의 형상화 방식을 비교·대조하여 살펴보았다. 향랑 이야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향랑을 통해 어떤 의미를 구현하고자 하는가에 따라 향랑을 읽고 다시 ‘쓰는’ 방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결론과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랑전설의 향랑은 이데올로기에 침윤되지 않은, 인간 본연의 감정에 충실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한자를 매개로 남성 사대부의 세계에서 유통된 향랑의 이야기는 정절을 위해 목숨을 버린 열녀의 이야기였지만, 구전의 전통 아래 한글을 매개로 20세기까지 이어진 향랑의 이야기는 가족에게 사랑 받지 못하고 갈 곳을 잃어 목숨을 버린 가련한 여인의 이야기였다. 이러한 차이의 도출은 소재를 공유하는 전(傳)과 전설의 일반적인 차이를 재확인하는 것인 동시에, 그간의 논의가 ‘열녀로서의 향랑’, 이어 ‘열녀로서의 향랑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져 온 점을 생각할 때, ‘고독과 비련의 여주인공’으로서의 향랑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적인 작업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둘째, ‘열녀 향랑’과 ‘가련한 향랑’의 형상은 오랜 시간 공존하며 경합해 왔다. 향랑전설의 기원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향랑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은 향랑의 사건이 있었던 18세기부터 공존해 왔을 것으로 보인다. 대개의 향랑전설은 열 이데올로기에서 탈각해 있지만, 20세기의 향랑전설 자료 가운데도 〈향랑전〉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이 없지 않다. 『신한민보』에 실린 「향랑」이라는 글은 향랑연과 산유화 노래의 전설을 다루고 있지만 약가, 조정의 정문(旌門) 등을 언급하며 〈향랑전〉과 유사한 이념을 표방하고 있

다.⁶⁶⁾ 비교적 최근에 편찬된 경북의 ‘지방지’(地方誌)에서도 공식적인 문헌만을 참고하여 향량을 열녀로 추앙하는 내용이 보인다.⁶⁷⁾ 이러한 사례들은 향량을 보는 관점의 차이가 일종의 헤게모니 싸움이며, 향량을 보는 시각은 당대에는 물론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고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다만, 1920~30년대에 이르는 시기의 대중적 기호는 확실히 ‘가련한 향량’ 쪽에 쏠려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 〈향량전〉과 향량전설은 상호 영향관계 속에 있었다. 이는 위에서 지적한 사실과 부분적으로 충돌하는바, 향량을 보는 명백히 대조적인 관점이 엄존하는 가운데 서사의 디테일에는 교착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앞에서 언급했던 이안중의 「향량전」에서 설화의 영향이 크게 감지된다면, 향량전설의 서사에 〈향량전〉의 이념이 착종된 기록도 보인다. 예컨대 차상찬의 글은 조귀상(趙龜祥), 최성대(崔成大), 신유한(申維翰) 등을 직접 언급하고 있으며, 글 전반이 조귀상이나 이광정의 전과 유사하다.⁶⁸⁾ 이는 〈향량전〉과 향량전설이 동태적(動態的)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량이라는 인물의 복합성을 이해하는 한 방편이 될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람은 국가에 대해 부정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⁶⁹⁾ 그러나 열녀가 이념화되고 가공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 열녀의 자살은 결과적으로 사대부 남성 집단으로 상징되는 국가의 이념에 잘 복무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경상북도 구미시 시립도서관 앞뜰에는 조귀상과 신유한의 시가 큰 돌에 새겨져 서 있는데, 그 비의 이름은 ‘열녀 향량 노래비’이다. 20세기를 전후하여 각축하던 ‘열녀 향량’과 ‘가련한 향량’ 가운데 적어도 그곳에서는 열녀 향량이 승리한 것으로 보인다. 관(官)은 여전히 어떤 죽음이든 자신의 이익에 맞게

66) 필자 미상, 향량, 『신한민보』, 1917.10.18.

67)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에서 펴낸 『傳統文化的 脈』(경상북도 교육위원회, 1987)에서는 『선산군지』(善山郡誌), 『선산읍지』(善山邑誌) 등을 참고하여 지방 전설의 하나로 향량연의 사연을 소개하고 있으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열녀 향량의 숭고한 정절은 절개 높은 한국 여인상의 귀감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순결과 윤리의 밝은 등불이 되어 길이 빛날 것이다”라는 말로 글을 끝맺고 있다. 이러한 마지막 구절은 현대판 논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68) 車相瓚, 앞의 글, 17면 등 참조.

69)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최명관 역, 서광사, 1984, 170~171면.

가공하기를 좋아하는 듯하다. 그러나 향랑전설의 유연하고 사실에 찰진 한 전통 또한 여전히 저류에 흐르고 있다.

참고문헌

<자료>

- 『海叢』,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張瑠, 『安齋先生文集』, 형설출판사, 2005.
 李光庭, 『訥隱集』, 한국문집총간 187.
 李夏坤, 『頭陀草』, 한국문집총간 191.
 金民澤, 『竹軒集』, 김군태 편, 『文集所在傳資料集』 四, 계명문화사, 1986.
 尹光紹, 『素谷遺稿』, 한국문집총간 223.
 李鈺, 『潭庭叢書』, 김군태 편, 『文集所在傳資料集』 六, 계명문화사, 1986.
 俞漢雋, 『自著』, 한국문집총간 249.
 필자 미상, 「향랑」, 『신한민보』, 1917.10.18.
 張志淵, 『逸士遺事』(1922), 『張志淵全書』二,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9.
 牛耳洞人 抄, 「香娘淵의 由來, 傳說의 朝鮮(三)」, 『동아일보』. 1927.8.23.
 金東煥, 「향랑과 메나리꽃노래」, 『별건곤』 제10호, 1927.
 朴富吉, 「二千萬衆의 心琴에 부딪친 本報를 通하여 울고 웃은 讀者의 感想片片, 朝鮮의 十年間 喜悲曲-同病相憐格 香娘을 보고 울든 일」, 『동아일보』, 1930.4.1.
 車相瓚, 「山有花 노래와 朴香娘」, 民謠에 나타난 哀話(2), 『별건곤』 제57호, 1932.
 鄭益鎭, 「구슬픈 民謠를 남긴 香娘」, 佳人失戀血淚錄(2), 『삼천리』 제7권 9호, 1935.
 박영준 편, 「향랑비(香娘碑)와 향랑연(香娘淵)」, 『한국의 전설』7, 한국문화도서출판사, 1972.경상북도교육위원회 편, 『傳統文化의 脈』, 경상북도교육위원회, 1987.
 윤영·조정현·최웅범 편, 「향랑연」, 『조선민간전설』,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한국문화사 영인, 1994.

<논저>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최명관 역, 서광사, 1984.
 李春基, 「香娘說話의 小說化 過程과 變異」, 『한양어문연구』4, 1991.
 박희병, 『朝鮮後期 傳의 小說的 性向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3.

- 이대형, 「18세기 열녀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박혜숙, 「남성의 시각과 여성의 현실-서사한시(敘事漢詩)의 경우」, 『민족문학사연구』9, 창작과비평사, 1996.
- 질 들뢰즈, 『의미의 논리』, 이정우 역, 한길사, 1999.
- 이정우, 『시뮬라크르의 시대』, 거름, 1999.
- 정출현, 「〈향랑전〉을 통해 본 열녀 탄생의 메카니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1.
- 서신혜 편역, 『열녀 향랑을 말하다』, 보고사, 2004.
- 강명관, 『열녀의 탄생』, 돌베개, 2009.

Two Ways of Describing "Hyang-rang" -between Hyang-rang biography and Hyang-rang legend

Choi, Ji-nyeo

This thesis is a comparative research into the ways of describing "Hyang-rang" in Hyang-rang biography and Hyang-rang legend. Hyang-rang was a 17-years-old commoner who lived in Sunsan, Kyungsangbuk-do of latter Chosun dynasty. Her step mother and her husband treated her badly and her uncle urged her to remarry. She drowned herself as she didn't want remarry and nobody would like to live with her. To hear her death, 10 male writers wrote her biography to honour her faithfulness. In their biographies, The death of Hyang-rang was 'systematized' in the context of provincial faithful tradition and Hyang-rang was described as the incarnation of Confucian ethics. Distinctively, in the legend, there was romanticism instead of such faithfulness. In the legendary world, Hyang-rang was good, pretty and poor girl and just a victim of the feudal family system. So she was a person not for reverence but sympathy. These differences generally mean the differences between biography and legend. But the important things are two viewpoints have struggled from then on and the viewpoint of the legend provides us more balanced eye for "Hyang-rang".

Key words : Hyang-rang, Hyang-rang biography, Hyang-rang legend, systematization, virtuous woman, romanticization, heroine of tragedy

접수일자 : 2009. 4. 10 심사기간 : 2009. 4. 20~2007. 5. 10 게재결정 : 2009. 5. 20
--